



밥보다 배구... 동호인들의 기량 다지기

전북도 배구 동호인들의 2016년 마지막 축제인 '제1회 전북도 남녀 동호회 배구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화보 16면> 이번 대회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펼쳐진 가운데 각 동호회는 우승트로피를 차지하기 위한 열띤 경쟁을 펼쳤다.

특히 전주에서 열린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입실, 남원, 익산 등 각 지역의 클럽 동호회들이 참석하여 대회의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일조했다.

대회 결과 남자부 전주V9 클럽이 우승을

전북 남녀 동호회 배구대회 성료

전주V9클럽, 남자부 여자부 모두 우승 차지

송기수·유미라 선수 최우수 선수로 뽑혀

차지했으며, 익산클럽은 아쉽게 준우승에 그쳐야 했다. 여자부는 전주 V9클럽이 우승을 차지했고, 서문투나 클럽은 간발의 차로 준우승으로 만족해야 했다.

전동클럽의 송기수 선수와 전주지곡의 유미라 선수는 대회 최우수 선수로 뽑히며 이번 대회의 별칭에 별로 거듭나게 됐다.

개회식에 참석한 전주시 배구협회 신대철 회장은 "배구동호인 여러분이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며 칭찬하는 멋진 스포츠맨십을 발휘한 대회가 됐다"고 말했다.

대회 주최측인 전주매일신문사 조봉성 대표는 "동호인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쌓아온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한 대회가 된 것 같아 기쁘다"며 "이러한 좋은 취지의 대회가 매년 이어질 수 있게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도 생활체육 배구활성화를 위해 열린 제1회 전라북도 남녀 동호회 배구대회는 2개 종목에 14개 시군 배구동호회 20개팀 250여명의 참가자가 참석했다. /김민근 기자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 개장

국내 유일하게 국립공원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손꼽히는 무주덕유산리조트(대표 이길범)가 지난 2일 아침 9시에 패트roller 대원들과 스키스쿨 강사 22명이 적색,황색,백색 엄막스키를 들고 투기힐 슬로프를 내려오는 이벤트를 선보이며 2016/17 은빛 설원의 계절이 시작됐음을 알렸다.

12월 2일 아침 개장과 동시에 처음으로 슬로프를 내려오는 고객에게 머무와인 선물과 개장을 손꼽아 스키어들에게 흰 눈처럼 하얗고 따뜻한 백설기를 나누어 주는 깜짝 이벤트도 펼쳐졌다.

개장 당일 중급자용 슬로프인 투기힐을 시작으로 나머지 20개의 슬로프는 12월 말까지 오픈하기 위해 제설에 주력할 계획이다.

리프트는 반일 2만원, 주간 3만원, 렌탈은 1만원의 정액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개장 다음날인 12월 3일부터는 상급자용 슬로프인 레이더스 하단을 추가오픈하며 야간(22시)까지 운영한다.

무주덕유산리조트 관계자는 "추가 슬로프 오픈을 위해 제설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최상의 설질에서 좋은 컨디션으로 안전하게 라이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국내 최고 스키장의 위력을 보여주겠다"고 야심차게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음주 뺑소니 강정호, 내년 WBC 대표팀 승선 불투명

구설 오르며 소속팀 징계 가능성도 제기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29)가 음주운전 뺑소니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아 내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승선이 불투명해졌다.

시즌 중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강정호가 비시즌 중 한국에서 음주사고로 구설에 오르면서 소속팀의 징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정호는 지난 2일 새벽 술에 취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인근 우회도로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차량과 가드레일을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사고를 낸 뒤 달아났던 강정호는 경찰에서 붙잡혔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4%로 확인됐다.

강정호는 지난 6월 성폭행 혐의로 미국 현지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국내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로 또 다시 물의를 빚었다.

경기장 밖에서 연이어 문제를 일으

켜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당장 이번 사고로 강정호는 내년 3월 열리는 제4회 WBC 대표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메이저리그에 연착륙한 강정호는 대표팀 주전 3루수나 유격수로 활약이 예상됐다.

2014년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빅리그 입성에 성공한 강정호는 데뷔 첫해 126경기에 출장해 타율 0.287 15홈런 58타점으로 내셔널리그 올해의 신인 투표에서 3위에 올랐다.

올 시즌에는 부상으로 초반 경기에서 나오지 못하면서도 103경기에서 타율 0.255 21홈런 62타점으로 한국인 타자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성적을 남겼다.

이 같은 활약 덕분에 대표팀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대표팀 유니폼을 입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정호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

속에서 적발된 것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 후 도주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운전한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 한국야구위원회(KBO)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었지만 음주 뺑소니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선수를 자숙 기간 없이 대표팀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KBO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관련 내용을 기술위원회에서 보고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KBO 기술위원회는 해외 원정 도박 파문 이후 내려진 리그 징계를 소화하지 못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마무리 오스환(34)을 대표팀에서 제외했다.

이번 사고로 소속팀 피츠버그나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 음주운전에 비교적 관대했

던 미국 프로스포츠도 서서히 징계 수위를 높이고 있는 추세다.

더욱이 강정호는 지난 성폭행 혐의에 대한 결론도 나지 않은 상황이다. 또 다시 경기장 밖에서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벌금이나 출전정지 등의 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추신수(34)는 지난 2011년 미국 현지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 구류 27일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75달러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메이저리그는 출장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미국 현지 언론도 강정호의 음주운전 사고에 관심을 보이며 징계 가능성을 언급했다.

NBC스포츠는 "피츠버그 구단과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 "강정호는 벌금 또는 출전정지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김민근 기자

전북현대 최강희 감독, AFC 올해의 감독상 수상

프로축구 전북현대를 10년 만에 아시아 정상으로 이끈 최강희(57) 감독이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했다.

최강희 감독은 지난 2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2016 AFC 어워즈에서 올해의 감독상(남자 부문)을 수상했다.

최 감독은 올해 AFC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알아인(UAE)을 물리치고, 전북에 2006년 이후 10년 만에 다시 우승 트로피를 안겼다.

한국 감독이 AFC 올해의 감독상을 받은 것은 지난 2013년 최용수 당시 FC서울 감독에 이어 3년 만이다.

또 1994년 이 상이 제정된 이후 한국인으로는 8번째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1995년 박종환 당시 일화전마 감독을 시작으로 차범근 국가대표팀 감독(1997년),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2009년), 김대희 17세 이하(U-17) 여자대표팀 코치(2010년), 김호곤 울산현대 감독(2012년), 최용수 서울 감독 등이 수상했다.

최 감독은 2014년과 지난해 K리그에서 2연패를 달성했고, 올해 AFC 챔피언스리그를 제패하면서 명실상부 최고 명장으로 자리매김했다.

/김민근 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